

# 日本 近世 시기 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의 韻書 인용과 清濁 變容의 문제 — 唇音 全清・次清字를 중심으로

宋在漢\*

- |                                           |                                              |
|-------------------------------------------|----------------------------------------------|
| I. 들어가며                                   | IV. 『山家本』 『日相本』 중 한 쪽이 中古音<br>聲母와 일치하지 않는 용례 |
| II. 研究資料                                  | V. 나오며                                       |
| III. 『山家本』 『日相本』 모두 中古音<br>聲母와 일치하지 않는 용례 |                                              |

## ● 국문초록

日本漢字音에 있어서 漢音과 함께 중심적인 체계라 할 수 있는 吳音은 漢音보다도 전래가 오래되고 전래 당시의 漢字音 자료가 잔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래 당시의 모습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吳音은 資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래 당시의 時期的・空間的 차이에 의해 다른 層이 混入되어 있어 字音形을 규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는 漢字音의 도입 당시 日本語 자체의 表記上の 문제(上代特殊仮名遣い) 및 漢字音이 日本語로 同化되는 과정에 있어서 日本人들의 수용 태도, 上古音의 殘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字音의 變容」이라는 측면에서 讀誦音(傳承音 혹은 流通音)의 정비 과정에서 韻書 인용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吳音이 佛教敎學의 學習의 場에서(天台宗, 日蓮宗 등) 어떻게 정착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첫째 韻書 수용이 吳音의 字音 變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字音의 變容과

\* 日本學術振興會(JSPS) 外國人特別研究員(山形大學人文社會科學部)

전통적인 讀誦音의 수용에 따라 吳音이 정착하는 과정을 唇音系 淸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字音의 淵源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 ① 諧聲符 자체가 濁音이며,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단순 類推)
- ② 같은 諧聲符를 갖는 글자가 淸音과 濁音을 가지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
- ③ 異體字가 濁音을 갖으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
- ④ 品詞 혹은 漢語의 語彙에 따라 淸濁이 나뉘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
- ⑤ 新濁에 의한 濁音이 고착화 한 것으로 보이는 것
- ⑥ 聲點의 誤記

주제어 : 淸濁, 法華經字音學, 山家本, 日相本, 字音 改變, 變容, 諧聲符, 異體字의 사용

## I. 들어가며

본고는 일본 近世시기의 『法華經』直讀資料인 『山家本』과 『日相本』 및 『法華經』의 字音注釋書 3種을 중심으로 『法華經音義』諸本과 비교 검토하여 日本 吳音의 정착 과정 중 清濁의 變容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 吳音의 자료는 대부분 佛教 經典에 해당하며, 이 중 『法華經』 및 『法華經音義』는 日本漢字音史에 있어서 文獻的 가치가 높으며 자료의 양도 많기 때문에 漢字音(특히 吳音) 연구의 활용도에 있어서 최상의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의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小倉肇의 연구(1995·2014)와 字音点分韻表는 『法華經』 吳音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中世 鎌倉시대에 『韻鏡』이 수입된 이후 漢字音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近世에 들어와 출판 문화가 발달하며 각종 音義書와 韻書 등이 대량으로 간행되었고, 당시 佛教 教學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讀誦音を 정비하게 된다. 전통적인 『法華經』 讀誦音에는 中國의 韻學(韻書나 韻圖)과 일치하지 않는 讀誦音が 散見되는데, 韻學에 기반한 反切音과 전통적인 讀誦音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에 대해 佛教教學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中世까지의 法華經字音學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讀誦音を 중시하는 경향이었지만, 近世에 들어와서도 전통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韻書 등을 참고하여 이를 改變하려는 흐름이 생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宗派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같은 宗派 내에서도 승려들의 字音觀에 따라 字音を 규정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이들의 字音觀은 본고에서도 자료로 이용한 注釋書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注釋書의 내용은 당시 吳音 즉 『法華經』 讀誦音에 대한 인식과 傳承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近世의 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字音觀과 이를 통한 字音 정비의 現狀을 파악하여 『法華經』의 讀誦音(吳音)이 어떻게 수용되고 정착해 왔는지를 清濁의 變容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清濁은 일본어에 있어서 음운론적 변별 자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吳音의 清濁

1) 이들은 字音を 결정하는 데 있어서 先代의 音義 및 韻書を 참고하였으며, 『廣韻』뿐만 아니라 『古今韻會舉要』(이하 『韻會』)·『增修互註禮部韻略』(이하 『增韻』) 등을 重用하였다.

變容은 漢和辭典에서 규정하고 있는 慣用音의 淵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字音直讀 자료인 『法華經山家本』(天台宗)과 『法華經日相本』(日蓮宗)의 字音注를 주자료로 하고, 注釋書 3種의 내용과 『法華經音義』諸本과 비교하여 異同 관계를 통해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淵源에 대해 通時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지면의 제한으로 唇音 聲母 중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全淸字(幫母)·次淸字(滂母)로 한정하며, 『山家本』과 『日相本』에 加點된 字音注의 淸濁이 中古音과 두 자료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것과 한 쪽만 일치하지 않는 용례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2)</sup>

## II. 研究資料

이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sup>3)</sup> 이 중 『山家本法華經』과 『日相本法華經』 그리고 注釋書 3種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이 자료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개별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으나 字音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注釋書 3種과의 비교 연구는 전무하다.

- 
- 2) 본고에서 唇音 全淸·次淸만 다룬 것에 대해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본고의 검토를 위해 사용한 『山家本』 『日相本』 및 音義 諸本の 게출자는 중복 글자를 제외하면 총 2,342字이다. 이 중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글자는 200字를 약간 上廻하며, 본고는 이 글자들에 대한 검토 중 일부에 해당한다. 본고는 지면 관계상 일부만 언급한 것이며,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聲母 전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더불어 淸濁의 불일치에 대한 것이 中古音과 日本漢字音 사이에 존재하는 音韻論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日本漢字音에 있어서 淸濁의 반영은 音韻論의 인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中古音의 全淸·次淸에 해당하는 日本吳音의 聲母 반영은 淸音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淸濁의 변별이 서로의 언어에 변별적 체계로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응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정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면을 빌어 심사자의 助言에 감사드린다.
- 3) 연구 자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며, 字音注의 비교를 위해 小倉肇의 資料篇(1995·2014)도 이용하였다.

<妙法蓮華經 卷1~卷8>

『法華經山家本』(1835)<이하 『山家本』>, 宗淵 著, 早稻田大學圖書館藏本

『法華經日相本』(1854)<이하 『日相本』>, 日相 著, 梅本正雄(1970) 『日相本法華經  
開結』影印本

<音義類>

『九條家本法華經音』(平安末期)<이하 『九條家本』>古典保存會 影印本(1936)

『西教寺本法華經音義』(1365)<이하 『西教音義』>萩原義雄(1990)의 翻字本文

『西教寺本法華經略音』(1365)<이하 『西教略音』>萩原義雄(1990)의 翻字本文

『心空本法華經音訓』(室町初期)<이하 『心空音訓』>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心空本法華經音義』(1649)<이하 『心空音義』>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法華經文字声韻音訓篇集 快倫本(上/中/下)』(1636)<이하 『快倫音訓』>日本國立國  
會圖書館本

『西來寺藏 法華經文字声韻音訓篇集 (快倫・慶長十三年刊本)』(1608) 影印本文, 『  
古辭書研究資料叢刊 第7卷, 木村晟 編

『法華經音義 快倫編』(1653)<『快倫音義』>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法華經音義』(作者未詳, 1654)<이하 『承應本』>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淨土三經字音考』(1773)<이하 『淨土音義』>日本國立國會圖書館本

<注釋書>

『法華經山家本裏書』(1840), 宗淵 著, 『法華經山家本裏書』影印復刻(1980)

『法華經音義補闕』(1698, 卷1~卷5), 日相 著, 兜木正亨(1972) 『法華音義類聚 坤』

『法華經隨音句』(1634, 上/下), 日遠 著, 中田祝夫(1971) 『日遠著法華經隨音句』影印本

<기타>

小倉肇(1995) 「資料分韻表」 『日本吳音研究』新典社

小倉肇(2014) 「資料分韻表」 『續 日本吳音研究』和泉書院

## 1. 『法華經山家本』(1835)

『法華經山家本』은 天台宗學僧宗淵이 撰述한 것으로 底本은 早稻田大學圖書館本 (8帖, 天保6年(1835)刊)에 의한다. 일본의 天台宗系에서 『法華經』은 주로 慈海版을 사용하고 있으나 宗淵이 주지가 된 西來寺를 중심으로 한 天台眞盛宗 伊勢教區에서는 『法華經山家本』이 중심이 된다. 宗淵(1786~1859)은 近世에 들어와 法華經直讀音

에 있어서 傳承音과 反切音과의 사이에 혼란이 생기게 되자 오래되고 올바른 讀誦을 재현하고자 伝教大師의 古本을 기준으로 약 76本の『法華經』異本을 校合하여『法華經山家本』을 완성하게 된다. 『法華經山家本』의 字音注는 우측에 吳音を 기재하고 각 글자의 주위에 墨点으로 四聲點을 표기하고 있으며 上聲과 去聲 사이에 毘富羅聲을,<sup>4)</sup> 平聲과 入聲 사이에 ㄱ入聲을 加點하고, 句點은 문자의 사이에 흰색의 큰 원형의 圈點으로 나타내고 있다. 經文의 字音注 중 경우에 따라서 좌측에 표기된 것이 있는데, 이는 주로 連聲에 의한 표기나 合拗音의 直音표기 등을 加點하고 있다. 또한 『法華經山家本』에서는 促音과 半濁音を 각각 「ッ」(小書き)와 「」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四つ仮名・開合 등을 고려하면 加點된 字音은 室町시대 이전의 것을 전하고 있다.<sup>5)</sup>

## 2. 『法華經日相本』(1854)

『法華經日相本』은 京都 本滿寺에서 출간된 梅本正雄(1970) 『日相本法華經開結』을 底本으로 하였다. 久成院日相(1635~1718)은 江戸시대 日蓮宗 僧侶로 法蓮寺에서 住職으로 은퇴(1689)한 이후 『法華經音義補闕』(元禄11, 1698) 및 많은 音韻 관련 책을 저술했다. 이 중 法華經校正 八卷(元禄7, 8년)이 『法華經日相本』이며, 日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日相板法華經』과 『法華經音義補闕』이라 할 수 있다. 日相의 遺著에는 音韻 관계의 未刊 두 저서가 있으며 『法華經音義補闕』에 인용한 字書類와 典籍으로 보아 音韻에 정세했음을 알 수 있으나, 日相이 언제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6)</sup> 『日相本』도 『山家本』과 마찬가지로 讀誦音이 經文 전체에 仮名로 加點되어 있다. 이처럼 仮名가 加點된 것은 初學者의 길잡이 역할과 동시에 올바른

- 
- 4) 毘富羅란 梵語 「vipula」의 音譯으로 ‘높은 소리’라 해석되는데, 上聲보다는 상당히 높고 강하다. 또한 길고 폭이 넓은 음으로 上聲의 重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上聲 또는 平聲의 문자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句의 처음에 올 때에 毘富羅聲이 된다고 한다. 色井秀讓, 『眞阿宗淵上人と山家本法華經-西來寺よみの手引』, 西來寺刊, 1980, 100면.
- 5) 湯沢質幸, 『唐音の研究』, 勉誠社, 1987, 324~326면. 兜木正亨(1982:203)은 法華經音의 측면에서 嵯峨本과 山家本은 上代音 系統, 日相本과 慈海本은 近世音에 의한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 6) 兜木正亨, 『法華經音義類聚 坤』해설, 本滿寺, 1972, 502~507면.

讀誦音を 보급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法華經』 讀誦音が 혼란을 겪고 있던 것에 대한 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日相本』에는 각각의 漢字마다 片仮名으로 된 讀誦音과 聲點을 모두 加點하고 있는데, 四聲點은 『韻鏡』이나 『佩文韻府』의 聲點과 대부분 일치한다.<sup>7)</sup> 이는 日相이 활약한 시기의 讀誦音의 聲調는 형식화되어 있었고, 특히 日蓮宗 教學에서 傳統音의 聲調를 계승할 필요는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四聲에 의한 구별이 용이하지 않았고 이는 당시 四聲에 의해 구별하는 의미가 희미해졌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日相本』의 聲點은 吳音의 聲點이 加點된 『山家本』과의 비교를 통해 字音注의 성격을 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1〉 『法華經』 各卷의 品題<sup>8)</sup>

| 卷  | 品題        | 略稱  | 略稱<br>(表內) |
|----|-----------|-----|------------|
| 卷1 | 序品第一      | 序品  | 序          |
|    | 方便品第二     | 方便品 | 方          |
| 卷2 | 譬諭品第三     | 譬諭品 | 譬          |
|    | 信解品第四     | 信解品 | 信          |
| 卷3 | 藥草喻品第五    | 藥草品 | 藥          |
|    | 授記品第六     | 授記品 | 授          |
|    | 化城喻品第七    | 化城品 | 化          |
| 卷4 | 五百弟子授記品第八 | 五百品 | 五          |
|    | 授學無學人記品第九 | 人記品 | 人          |
|    | 法師品第十     | 法師品 | 法          |
|    | 見寶塔品第十一   | 寶塔品 | 寶          |
| 卷5 | 提婆達多品第十二  | 提婆品 | 提          |
|    | 勸持品第十三    | 勸持品 | 勸          |
|    | 安樂行品第十四   | 安樂品 | 安          |
|    | 從地涌出品第十五  | 涌出品 | 涌          |

7) 兜木正亨, 『法華版經の研究』, 大東出版社, 1982, 403면.

8) 品題의 略稱(表內)는 分韻表에서의 略稱이다.

|    |              |      |   |
|----|--------------|------|---|
| 卷6 | 如來壽量品第十六     | 寿量品  | 寿 |
|    | 分別功德品第十七     | 分別品  | 分 |
|    | 隨喜功德品第十八     | 隨喜品  | 隨 |
|    | 法師功德品第十九     | 功德品  | 功 |
| 卷7 | 常不輕菩薩品第二十    | 不輕品  | 不 |
|    | 如來神力品第二十一    | 神力品  | 神 |
|    | 囑累品第二十二      | 囑累品  | 囑 |
|    | 藥王菩薩本事品第二十三  | 藥王品  | 本 |
|    | 妙音菩薩品第二十四    | 妙音品  | 妙 |
| 卷8 | 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 | 普門品  | 普 |
|    | 陀羅尼品第二十六     | 陀羅尼品 | 陀 |
|    | 妙莊嚴王本事品第二十七  | 嚴王品  | 嚴 |
|    | 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  | 普賢品  | 發 |

妙法蓮華經序品第一  
如是我聞一時佛住王舍城耆闍崛山中與  
大比丘眾萬二千人俱皆是阿羅漢諸漏已  
盡無復煩惱逮得已利盡諸有結心得自在  
其名曰阿若憍陳如摩訶迦葉優樓頻螺迦

『山家本』

妙法蓮華經序品第一  
如是我聞一時佛住王舍城耆闍崛山中與  
大比丘眾萬二千人俱皆是阿羅漢諸漏已  
盡無復煩惱逮得已利盡諸有結心得自在  
其名曰阿若憍陳如摩訶迦葉優樓頻螺迦

『日相本』

〈그림 1〉 『山家本』 『日相本』의 序品第一 冒頭

### 3. 字音注釋書 3種

#### 1) 宗淵 『法華經山家本裏書』(1840)

宗淵의 저술 중 『法華經山家本』과 함께 『法華經考異』 『法華經山家本裏書』는 宗淵의 字音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法華經考異』는 『法華經山家本』의 異本校合의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말미의 「對校諸本略目錄」에서 校合에 이용한 76本에 대해 간단히 해설하고 있다. 『法華經山家本裏書』의 底本은 眞阿宗淵上人(宗淵)이 天保11年(1840)에 改板한 西來寺藏板 『法華經山家本裏書』의 影印復刻本(1冊)에 의한 다.<sup>9)</sup> 『裏書』는 원래 『法華經山家本』의 각 권마다 經背에 四聲·清濁·四聲의 輕重·漢音吳音의 音訓의 異同이 있는 것에 대해 考證을 실어 놓은 것으로, 卷音義의



法華經山家本裏書

法華經考異

〈그림 2〉 宗淵의 『法華經山家本裏書』와 『法華經考異』

9) 『法華經山家本裏書』 影印復刻, 芝金聲堂, 1980. 본 자료는 皇學館大學의 名譽教授인 長谷川明紀 선생님께서로부터 제공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形式을 갖추고 있다. 각 권의 첫 머리에는 해당하는 卷의 拖數·行數·文字數를 표시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sup>10)</sup>

또한 『裏書』에는 校合에 사용한 異本과 함께 字音を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論語 史記 詩經 說文解字 康熙字典 玉篇 廣韻 五音集韻 韻鏡 古今韻會舉要 玄應音義 慧琳音義 心空音義 快倫音義 法華經隨音句 大般若經 仁王經 古事記 万葉集 色葉字類抄 倭名鈔 日本靈異記 日本紀 明鏡集 ……

## 2) 日遠 『法華經隨音句』(1634)

『法華經隨音句』는 心性院日遠(1572~1642)이 저술한 卷音義 型式의 法華經音義로 上下 두 권이다. 底本은 中田祝夫(1971)의 『日遠著法華經隨音句』影印本에 의하며, 印刷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은 兜木正亨(1971) 『法華音義類聚 乾』에 의해 보충하였다. 上卷은 序品에서 勸持品까지, 下卷은 安樂行品에서 勸發品까지 수록하고 있다. 또한 上卷의 卷頭에는 「舌音齒音」(四つがな)에 대해, 下卷의 卷末에는 「廣狹」(才段長音의 開合)에 대한 논의가 있다.

日遠이 『法華經隨音句』를 저술한 목적은 당시 讀誦音의 誤謬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快倫이나 宗淵 등의 저술 목적과도 일치한다. 다만 日蓮宗 승려인 日遠은 이전의 法華經音義와는 달리 올바른 法華經讀誦音을 정하기 위해 중국의 佛敎書나 韻書·韻圖에 의해 전통적인 法華經讀誦音을 적극적으로 改變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韻書보다도 『古今韻會舉要』을 重用하고 있다. 그러나 『法華經隨音句』의 注釋에는 「今更難改」와 같이 字音의 改變을 보류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는 韻書에 의해 法華經讀誦音을 적극적으로 改變하고는 있지만 전부를 改變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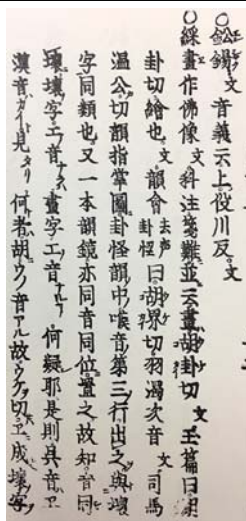
10) 「拖」란, 「天」의 경계선 위에 기재된 숫자를 말한다. 「一」은 생략되어 있지만, 「二」 이하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宗淵이 開板한 『法華經山家本』에서는 一拖 四十行으로 되어 있다. 拖數는 그 자체로 板木의 번호를 나타내며, 오늘날의 면(쪽)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法華經山家本』의 拖數 總計는 102拖이며, 字數는 69,707字이다. 色井秀讓, 앞의 책, 5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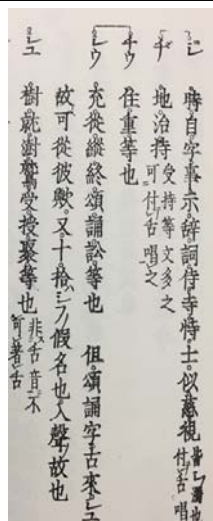
〈序品 2拖〉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日遠은 『法華經隨音句』에서 字음을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文獻을 인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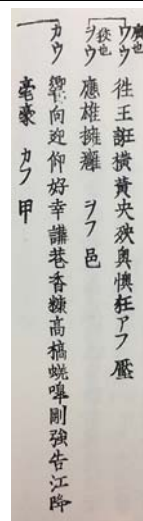
法華經文句箋難 法華經科注 法華經句解 法華三大部補注 法華經文句記 法華文句  
東春 法華文句私志記 法華義疏 止觀輔行傳弘決 法華玄義釈籤 一切經音義 新集藏經  
音義隨函錄 高麗音訓 翻譯名義集 法華經音義(心空) 法華經釋文 讀經口傳明鏡集 舊  
書 古今韻會舉要 增修互註禮部韻略 洪武正韻 韻鏡 切韻指掌圖 玉篇 經史海篇直音  
.....



法華經隨音句[上12ウ]



法華經隨音句[舌音齒音]



法華經隨音句[廣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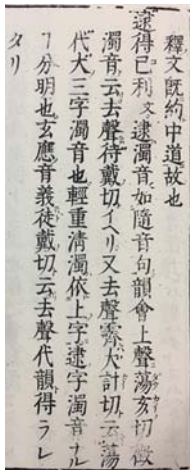
〈그림 3〉 日遠의 『法華經隨音句』

### 3) 日相 『法華經音義補闕』(1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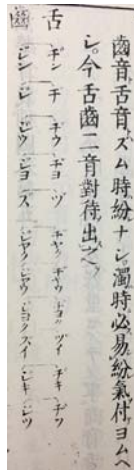
日相(1635~1718)의 『法華經音義補闕』(1698)은 日遠의 『隨音句』를 「補闕」한다는 목적으로 편찬된 일종의 증보판으로 5卷의 卷音義라 할 수 있다. 底本은 兜木正亨(1972) 『法華音義類聚 坤』에 의한다. 卷一은 「同形異訓・異形同訓」의 文字에 대한

11) 日遠의 『古今韻會舉要』 인용에 대해서는 中澤信幸(2013) 第2章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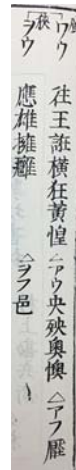
論議이다. 卷二에서 第卷五까지는 『隨音句』의 型式과 거의 동일하지만, 語句의 항목은 『隨音句』보다 많아 약 2배에 달한다. 본고에서는 卷二에서 卷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日相은 日遠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 중 「如『隨音句』」 「指南如『隨音句』」 등과 같이 日遠의 『隨音句』를 계승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字音を 정할 때 「今更難」改와 같은 이유로 妥協的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日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四聲点에 대해서는 日遠과 日相이 같은 곳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 日相은 韻書에 의해 四聲点을 加點했기 때문이며, 이는 『日相本』의 聲點도 대체로 韻書의 四聲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法華經音義補闕[二13才]



法華經音義補闕[舌音齒音]



法華經音義補闕[廣狹]

〈그림 4〉 日相의 『法華經音義補闕』

日相의 『法華經音義補闕』에서는 다음과 같은 典籍을 인용하고 있다.

論語 孟子 禮記 史記 說文解字 玉篇 廣韻 集韻 韻鏡 古今韻會舉要 增修互註禮部  
韻略 法華經隨音句 心空音義 快倫音義 科注 句解 箋難 補注 法華經諸異本 儒書  
.....

### Ⅲ. 『山家本』 『日相本』 모두 中古音 聲母와 일치하지 않는 용례

中古音에 존재하는 無氣音과 有氣音의 차이를 일본어에서는 音韻으로서 구별하지 않으므로 幫・滂母字의 吳音은 기본적으로 八行의 仮名에 대응한다. 본 자료에서도 대부분 八行音으로 나타나므로, 幫・滂母에 속한 글자 중 『山家本』 『日相本』 모두 中古音 聲母와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용례에 대해 검토하며, 용례는 다음의 6字이다.

幫母(3字) : 鞞(支韻)・貝(泰韻)・坊(陽韻)

滂母(3字) : 撲(東韻1)・峯(鍾韻)・幡(元韻)

#### 1. 幫母

##### ① 鞞[幫支開甲上/并弭切]<sup>12)</sup>

〈표 2〉 「鞞」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ヒ(平濁)<br>ヒ(上濁) | ペイ<br>(平濁) | [復以反] | ヒ(平濁) | ヒ(平) | ヒ(上濁) | ヒ(平濁) | ヒ<br>(平濁/<br>㊦)<br>[卑同切] | ヒ(平) | ヒ(上濁) | ヘイ <sub>左</sub> /<br>ヘイ <sub>右</sub> /<br>{ヒ}<br>(去濁)<br>13)<br>[薄迷] |

12) 용례는 掲出字[聲母-韻-開合-聲調/反切]의 순서로 제시한다.(이하 동일)

13)  『淨土三經字音考』(소위 『淨土三部經音義』)의 濁聲點은 掲出字의 좌측 또는 우측에 圈點으로 加點되어 있으며 上濁과 去濁의 두 종류만 加點되어 있는데, 이 濁聲點은 일반적으로 上聲과 去聲을 나타내는 聲點과는 다르다. 上濁은 上聲의 위치에 있지만 左音注(漢音)의 濁音을, 去濁은 去聲의 위치에 있지만 右音注(吳音)의 濁音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反切上字에도 墨點으로 上濁과 去濁으로 加點되어 있으며, 의미하는 바는 漢字에 加點된 濁聲點과 동일하다. 한편 左・右音注 이외에 左音注 아래에 별도의 字音이 加點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字音을 나타내며, {ヒ}와 같이 괄호로 나타내었다.

「鞞」는 『廣韻』에 의하면 府移切(支韻幫母開三平)/并弭切(支韻幫母開三上)/部迷切(齊韻並母開四平)/補鼎切(青韻幫母開四上)의 多音字로, 小倉肇의 資料篇二(1995: 288) 및 資料篇二(2014:222)에서는 齊韻並母에 배치하고 있으나, 본 分韻表에서는 支韻幫母에 배치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西教略音』과 『快倫音義』의 「ㄷ(平)」를 제외하고 모두 濁音으로 나타난다. 淸音인 두 자료가 실제로 幫母를 의도한 것인지, 濁聲点 표기의 오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sup>14)</sup> 『淨土音義』는 ㄷ[薄迷]로 齊韻의 字音を 반영하고 있어 『日相本』의 「ㄷ」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支韻의 幫母(淸音)로 나타나는 자료는 小倉肇 資料篇二(1995:288)에 의하면 『法華經音義』元和本(1617)과 承應刊本(1653)뿐이다.<sup>15)</sup>

『九條家本』에서는 反切上字를 「復」(去聲·入聲 모두 並母)으로 사용하고 있어 濁音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最古의 写本인 『法華經單字』(保延2年, 1136, 이하 『單字』)에도 「鞞」의 反切上字는 「復(平濁)」이다.<sup>16)</sup> 이에 의하면 「鞞」의 聲母는 濁音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快倫音訓』의 경우 [卑同切]이라는 설명을 통해 「卑」의 反切인 [府移切]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鞞」의 府移切(支韻幫母開三平)과 일치하므로 快倫은 淸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字音注는 ㄷ(平濁/ㄷ)으로 加點하여 실제로는 濁音(平濁)으로 전통적인 讀誦音を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편 『日相本』과 『淨土音義』는 齊韻의 音形인 「ㄷ」는 並母에 해당하므로 濁音인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 音形은 『法華經音義』明覺三藏流本과 『華嚴經音義』에도 보인다. 다만 여기서 「鞞」의 讀誦音이 支韻인지 齊韻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鞞」는 經文 중 「阿鞞跋致」(譬喻品)에 보이며 梵語의 <avinivartanīya>에 해당하는 音寫字이다.<sup>17)</sup> 「阿鞞跋致」는 「阿毘跋致」로도 사용된다.<sup>18)</sup> 音寫字의 대응 관계

14)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 誤記로 보이는 用例가 散見된다.

15) 「鞞」는 小倉肇 資料篇二(2014:222)에 의하면 『大般若經字音点·音義』에서 한 예가 있으나 이외에는 모두 濁音으로 나타난다.

16) 『法華經單字』도 日本의 독자적인 反切을 취하고 있다. 島田友啓, 『法華經單字漢字索引』, 古字書索引叢刊, 1964, 128면.

17) 東國大學校 東國譯經院佛教辭典(web版)에 의한다.

18) 『玄應音義』에 의하면 「鞞 諸經有作阿毗跋致 ……」라 하고 있다. 즉 「毗」는 「毘」와 同字이다.

로 보면 「韓」(支韻幫母) : 「毘」(脂韻並母)의 관계가 된다. 音寫字로만 판단한다면 止攝에 해당하는 字音이 우선한다고 생각되지만 韻母의 音形은 後論으로 미루며, <vi>의 音寫에 있어서 「韓」와 함께 並母인 「毘」가 사용된 점은 「韓」의 清濁 표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韓」의 字音은 이 글자가 속한 韻이 止攝인지 蟹攝인지에 의해 清濁이 구별된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讀誦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하 注釋書의 내용을 살펴본다. 注釋書의 字音에 대한 설명 앞의 [譬][功] 등은 해당 글자의 經文이 있는 品題를 나타낸다. 品題의 略稱은 앞의 자료 해설을 참조 바라며, 내용은 이하 동일하다.

[譬]玄應音義云韓陞兮切<sup>ベイクイ</sup>。科注箋難句解等<sup>ア</sup>部迷切<sup>イ</sup>イヘリ。韻會齊<sup>モ</sup>駢迷切<sup>ベイクイ</sup>濁音<sup>ト</sup>イヘリ皆ベイ音也。支脂<sup>テ</sup>韻入<sup>ヒ</sup>卑<sup>ト</sup>音アレ<sup>ヒ</sup>清音也。今不<sup>レ</sup>用<sup>レ</sup>之<sup>ヲ</sup>。殊<sup>ニ</sup>玄應法師ベイ音<sup>ト</sup>定玉フ上<sup>ハ</sup>他<sup>ノ</sup>音<sup>ヲ</sup>不<sup>レ</sup>可<sup>レ</sup>用。餘<sup>ハ</sup>如<sup>ニ</sup>隨音句<sup>一</sup>。

『補闕』 三19ウ4

[譬]音義云。韓陞兮切。此與二聲<sup>ノ</sup>字一同。諸經<sup>ニ</sup>。有<sup>ハ</sup>作<sup>リ</sup>阿毘跋致<sup>ニ</sup>。或作<sup>ニ</sup>惟越致<sup>一</sup>。皆是。梵音<sup>ノ</sup>訛傳耳<sup>文</sup>。韻會齊曰。駢迷切。宮濁音。或作<sup>レ</sup>韓<sup>文</sup>。是既<sup>ニ</sup>。祭韻<sup>ノ</sup>濁音。ヘ<sup>ニ</sup>イ<sup>ノ</sup>音。決定也。不退<sup>ノ</sup>梵語。不同<sup>アリ</sup>。不可<sup>ハ</sup>恠<sup>ム</sup>之<sup>ヲ</sup>。然<sup>モ</sup>韓<sup>ノ</sup>字。旨脂<sup>ニ</sup>モ入<sup>タレ</sup>。ヒ<sup>ト</sup>似<sup>タレトモ</sup>可<sup>レ</sup>讀<sup>ム</sup>。其時<sup>ハ</sup>。清音<sup>ニ</sup>モ非<sup>ス</sup>濁<sup>ニ</sup>。然<sup>モ</sup>玄應法師。既爲<sup>ノ</sup>翻經入<sup>ト</sup>。能<sup>ク</sup>達<sup>メ</sup>諸方<sup>ノ</sup>言。著<sup>セリ</sup>一切經音義<sup>一</sup>。最信<sup>メ</sup>彼文<sup>一</sup>。ベイト。可讀者也。

『隨音句』 上23オ7

[功]談本長氏本嵯本並<sup>ニ</sup>清也。日遠改<sup>テ</sup>讀<sup>レ</sup>ベイ。然<sup>ニ</sup>相承<sup>ハ</sup>讀<sup>レ</sup>ビ音<sup>一</sup>。

『裏書』 p.138

[功]具<sup>ニ</sup>譬喻品<sup>ノ</sup>阿毘跋致<sup>ノ</sup>下<sup>ニ</sup>記<sup>ル</sup>カウトシ。此下<sup>ニ</sup>隨音句<sup>ニ</sup>又重<sup>テ</sup>出<sup>シ</sup>玉フ彼<sup>ノ</sup>往見<sup>一</sup>。

『補闕』 五5オ3

徐時儀校注, 『一切經音義三種校本合刊』, 上海古籍出版社, 2008, 134면.

[功]科注。箋難。句解。竝云。韓<sup>ハ</sup>。部迷切。韻會<sup>齊</sup>曰。駢迷切。宮濁音。是既<sup>ニ</sup>。齊<sup>ノ</sup>韻<sup>ナリ</sup>。ベ<sup>イ</sup>ノ音。決然也。ビ<sup>ト</sup>讀來<sup>ルト</sup>。イヘトモ。諸師<sup>ノ</sup>指南。尤可<sup>レ</sup>從<sup>レ</sup>之。但<sup>シ</sup>支脂韻<sup>ニ</sup>入<sup>テ</sup>。卑音<sup>モ</sup>ア<sup>レ</sup>トモ。彼<sup>ハ</sup>又清<sup>ニ</sup>。非<sup>ス</sup>濁<sup>ニ</sup>。唯改<sup>テ</sup>。ベ<sup>イ</sup>ト可<sup>レ</sup>讀也。

『隨音句』下10才6

\*밑줄은 필자에 의함.(이하 동일)

宗淵은 「韓」字가 일부 古本에서 淸音으로 사용되었고, 日遠이 齊韻의 「ベ<sup>イ</sup>」로 改變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讀誦音인 「ビ」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日遠은 脂韻에 속하는 경우는 ヒ(淸音)라 하여 韻書에 의해 淸音(幫母)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의 「陞兮切」(竝母), 그리고 『古今韻會舉要』(이하 『韻會』)의 [駢迷切](竝母)을 인용하여 「ベ<sup>イ</sup>」로 改變하고 있다. 이러한 字音觀은 日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韓」는 多音字에 해당하며 經文에서는 幫母(止攝) 혹은 竝母(蟹攝)로 宗派에 의해 나뉘어 있다. 竝母의 경우는 韻書에 의해 改變한 字音으로 中古音 聲母의 淸濁과 일치한다. 그러나 幫母의 경우 대부분의 讀誦音에서 濁音으로 되어 있다. 이는 梵語 音寫字라는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和風反切을 남기고 있는 平安 말기의 『九條家本』 및 『單字』 등에서도 全濁의 反切上字를 사용한 점, 이후 대다수 字音點과 法華經音義에서 전통적인 濁音으로 讀誦했다는 점은 宗淵의 『山家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韓<sup>ビ</sup>」는 현대 漢和辭典에도 吳音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sup>19)</sup>

## ② 貝[幫泰1去/博蓋切]

〈표 3〉 「貝」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平濁) | バイ<br>(去濁) | [婆界反] | ハイ<br>(平濁) | ハイ<br>(平濁) | ハイ<br>(平濁) | ハイ<br>(平濁) | ハイ<br>(平濁)<br><羽淸><br>[博蓋切] | ハイ<br>(平濁) | ハロ<br>(ロ?) | -    |

19) 佐藤進·濱口富士雄 編『漢辭海』第四版, 三省堂, 2019, 1578면.

全清幫母인 「貝」는 본 자료에서는 모두 濁音으로 나타나며 小倉肇 資料篇(1995:40)에도 濁聲点이 없는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濁聲点이 加點되어 있다.<sup>20)</sup> 『九條家本』의 反切은 [婆界反]으로 反切上字 「婆」는 並母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讀誦音은 濁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單字』의 [比(平濁)昧(平)切]로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反切을 나타내는 『法華經釋文』(이하 『釋文』)의 [博蓋切]과는 대별되는 것이다.

吳音자료 諸本에서 「貝」가 濁音으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婆」의 誤記 혹은 「咀」(並母) 등에 의한 類推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21)</sup> 注釋書에는 「貝」의 字音에 대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法華經讀誦音으로서 濁音이 전승된 경위에 대해 中古音의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貝」도 原音의 반영일 가능성보다는 「咀」에 의한 類推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法華經 經文 중 동일한 句文이라도 「咀」와 같이 經本간에 다른 글자(혹은 異體字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散見된다.

〈표 4〉 『法華經』 經文 중 異體字 混用例

| 字例             | 山家本(所在)                            | 日相本(所在)                              |
|----------------|------------------------------------|--------------------------------------|
| 躡(定母)-躡(定母)    | 咀嚼踐躡(フ入)(譬-237)                    | 咀嚼踐躡(フ入濁)(譬-237)                     |
| 嶮(曉母·疑母)-險(曉母) | 山川嶮(平)谷中(功-36)                     | 山川險(上)谷中(功-36)                       |
| 屬(禪母)-囑(照母)    | 付屬(入濁)有在(寶-111)<br>護持佛所囑(入濁)(勸-64) | 付囑(入新濁)有在(寶-111)<br>護持佛所囑(入新濁)(勸-64) |

위 용례들은 經本간에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嶮險」은 兩本에서 清音으로 中古音과 일치하지만 「躡躡」 「屬囑」은 中古音과 清濁이 맞지 않는 용례이다. 이처럼

20) 『法華經』 이외의 자료에서도 濁音形이 보인다. ハイ(平濁)-『華嚴經』 『大般若經』·和ハ<sup>レ</sup>イ-『類聚名義抄』·倍(並母)-『大般若經』, 『金光明最勝王經音義』에는 平聲單点(清音)으로 加點된 곳도 있다.

21) 小倉肇 研究篇(1995: 263~264)에 의하면 『法華經音義』 明覺三藏流本(室町中期寫)의 反切上字 「波」(幫母)는 保延本の 校合 등으로 보아 「婆」의 誤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林史典(1985)의 見解와 같이 經文 해당 부분이 絹蓋本에서 「咀」(並母)라는 점을 고려하면 「咀」의 類推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經本간에 다른 글자를 사용하여 淸濁이 다르게 나타는 것에 대해 字音學에 조예가 깊은 學僧이라도 일일이 韻書와 대조하지 않으면 글자간의 聲韻이 다른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想定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전통을 중시하는 宗派에서는 전통적인 讀誦音を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類推에 의해 발생한 讀誦音이 中古音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된다. 「貝」가 濁音으로 반영된 것도 經本간 혹은 동일 經本 내에서 字形은 유사하지만 聲韻이 다른 글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sup>22)</sup> 이 점은 단순히 혹은 막연하게 類推로만 판단해 온 것에 대해 再考할 점을 남긴다고 할 수 있으며, 類推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③ 坊[幫陽3平/府良切]

〈표 5〉 「坊」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ハウ<br>(上濁) | バウ<br>(平濁)<br>→房 <sup>23)</sup> | ハウ( )<br>[復香反] | ハウ<br>(上濁) | ハウ<br>(去濁) | ハウ<br>(上濁/去濁) | ハウ<br>(上濁) | ハウ<br>(去濁)<br>[房同切] | ハウ<br>(去濁) | ハウ<br>(上濁) | -    |

「坊」은 幫母 외에 竝母[符方切]의 字音도 있다. 『九條家本』과 『單字』의 反切은 [復香反]이며, 反切上字 「復」은 竝母이므로 두 자료 모두 濁音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의 音義에서도 모두 上濁 혹은 去濁으로 加點하고 있으므로 傳承音은 濁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釋文』의 [府良切]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快倫音訓』에서는 『韻會』의 淸濁 표시를 인용하지 않고 聲點은 去濁으로 加點하고

22) 일종의 類推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經本 간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이 선행 요인으로 생각된다. 兜木正亨(1954:268)는 『法華經』에 사용된 문자의 종류와 字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古寫經や古版本を對校した結果を綜合すると, 各本の相違をつぎの三通り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この中, 第二, 第三にあてはまる箇所は字數の増減に關係をもつ.

- (1) 字數は同じだが, 相互は別異な文字を使用する場合
- (2) 同じ意味の文字を使用するが, 古體文字, 異體文字, 俗字など字體が違ってゐる場合
- (3) 一本にない文字が, 他本に使用されてゐる場合

23) 『日相本』의 隨-39,73에 해당한다.

[房同切]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房」은 同韻 並母[符方切]로 「坊」의 다른 字音과 일치한다. 이처럼 「坊」을 濁音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 小倉肇(1995:266)는 「坊」의 原音은 並母였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즉 수용 당시부터 「坊」의 清濁에 있어서 幫母가 아닌 並母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으나 韻書의 又音도 참고가 된다. 「坊」의 字釋을 보면 並母는 「…又音方」, 幫母는 「…又音房」으로 「方」은 並母・幫母, 「房」은 並母에 해당하므로 讀誦音으로 수용할 때 並母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經文 중에서 앞의 「貝-咄」와 같이 「坊」 이외에 「房」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곳이 있다.

〈표 6〉『法華經』經文 중 「坊房」의 混用例

| 所在   | 山家本       | 日相本       |
|------|-----------|-----------|
| 隨-39 | 往詣僧坊(上濁)  | 往詣僧房(平濁)  |
| 隨-73 | 若故詣僧坊(上濁) | 若故詣僧房(平濁) |

위 용례는 『九條家本』 『單字』 등에 반영된 反切上字와 함께 讀誦音으로 수용할 당시 「坊」과 「房」을 같은 字音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貝」는 類推일 가능성이 크지만, 「坊」은 같은 諧聲符를 갖는 글자 혹은 異體字 中 中古音에서 다른 聲母를 갖는 글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 2. 滂母

### ① 撲[滂東1入/普木切]

〈표 7〉「撲」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撲 <sup>24)</sup><br>ホク<br>(入濁) | バク<br>(入濁) | [復木反]<br>[薄角反] | ホク<br>(入濁) | -    | ホク<br>(入濁) | ホク<br>(入濁) | ホク<br>(入濁)<br><羽次清><br>[普卜切] | ホク<br>(上入濁) | ホク<br>(入濁) | -    |

「撲」은 『西教略音』과 『淨土音義』에는 例字가 없으며, 두 자료 이외에는 모두 濁音으로 나타난다. 小倉肇 資料篇二(1995:248)에서는 「撲」을 「撲」과 같은 江韻에 배치하고 있으며, 濁聲点이 없는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濁音이다. 「撲」은 經文 중 「撲令失聲」(譬喻品)・「相掬相撲」(安樂行品)에 보이며 譬喻品の 경우 『山家本』에서는 「撲令失聲」으로 「撲」이 아닌 「撲」(入濁)을 사용하고 있다. 본 자료에 기재된 「撲」의 字音은 다음과 같다.

〈표 8〉 「撲」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ホク<br>(入濁) | →撲 <sup>25)</sup> | -    | ハク・<br>ホク<br>(入濁) | -    | -    | -    | -    | ホク<br>(入) | -   | -    |

이러한 加點은 적어도 본 자료에서는 「撲」을 本字로 사용하고 있고, 經本 또는 經文에 따라 「撲」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撲」은 『廣韻』에 의하면 江韻並母에 속한 글자이므로 濁音은 기본적인 대응이지만, 「撲」은 滂母이므로 濁音으로 나타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中古音은 『廣韻』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廣韻』에 기재된 두 글자의 聲韻을 보면 다음과 같다.

「撲」(通開一入屋滂) 普木切 拂著

「撲」(江開二入覺並) 蒲角切 相撲亦作撲

『廣韻』에 의하면 「撲撲」은 각각 通攝과 江攝에 배치되어 있고, 「撲」은 ‘相撲’의 의미일 때 「撲」과 相通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集韻』에서는 두 글자 모두 通攝과 江攝의 字音을 갖추고 있다.

「撲」(通開一入屋滂) 普木切 / (江開二入覺滂) 匹角切 / (江開二入覺並) 弼角切

「撲」(江開二入覺並) 弼角切 / (通開一入屋滂) 普木切

24) 譬-245에 해당한다.

25) 譬-245에 해당한다.

한편 『慧琳音義』에는 [薄角反]의 反切이 있으며,<sup>26)</sup> 『九條家本』에는 [復木反][薄角反]이란 두 개의 反切注가 加點되어 있다. 反切上字로 쓰인 復과 薄 모두 竝母에 해당하며, 이는 平安 말기 讀誦音에서도 「撲」을 濁音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말한다. 注釋書에도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譬]神護本藥本來本竝<sup>二</sup>同慶本尊勝本明藏本竝<sup>二</sup>作<sup>レ</sup>撲。嵯本臨本瑪本和藏本竝<sup>二</sup>作<sup>レ</sup>撲。三寶抄<sup>二</sup>云撲今作<sup>レ</sup>撲音朴<sup>ト</sup>。文明本心空快倫竝<sup>二</sup>濁音ボク。來本ボク バク兩音。應音<sup>二</sup>云符剝<sup>レ</sup>切<sup>ト</sup>。龍龕<sup>二</sup>云普木<sup>レ</sup>切扑同<sup>ト</sup>。處音<sup>二</sup>云ト仆二音<sup>ト</sup>。玉篇萬象抄<sup>二</sup>云普鹿<sup>レ</sup>反挨也投也打也。

『裏書』 p.57

[安]應音云正法念經<sup>二</sup>相撲妨ト反<sup>ト</sup>。撲相承讀<sup>二</sup>濁ボク音<sup>二</sup>如<sup>二</sup>譬喻品<sup>一</sup>。

『裏書』 p.114

[譬]如<sup>二</sup>隨音句<sup>一</sup>。

『補闕』 三16才1・四22ウ8

[譬]音義云。撲。符<sup>ハツ</sup>剝<sup>ハツ</sup>反<sup>ハツ</sup>文。箋難云。..平角切。韻會<sup>ハツ</sup>曰。彌<sup>ハツ</sup>角切 ……。

[安]如<sup>二</sup>譬喻<sup>ハツ</sup>撲<sup>ハツ</sup>令失聲<sup>ハツ</sup>。

『隨音句』 上20ウ6・下1才8

宗淵은 古本 및 心空과 快倫 그리고 『玄應音義』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經文 중 「撲」의 字音이 濁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撲」과 동일한 字音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宗淵은 이를 계승하여 「撲」을 濁音으로 하였다. 日遠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隨音句』의 내용에 의하면 江韻竝母의 字音만을 취하고 있다. 또한 「音義云·撲·符<sup>ハツ</sup>剝<sup>ハツ</sup>反<sup>ハツ</sup>文」이라 인용하고 있으나 어떤 音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反切 역시 江韻의 字音에 해당한다. 日相도 日遠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濁音으로 하고 있다.

26) 徐時儀校注, 앞의 2008 책, 988면.

「撲」은 『廣韻』에 의하면 次淸의 滂母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撲」과도 相通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서로 異體字 관계이다.<sup>27)</sup> 이러한 내용에 대해 宗淵·日遠 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宗淵은 「撲」과 「撲」의 相通에 의한 聲韻學的인 판단과 함께 전통적인 讀誦音を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반면 日遠은 『隨音句』의 내용만으로 볼 때 「撲」의 淸音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韻會』 등의 竝母만을 취해 濁音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中古音과 淸濁이 다른 加點은 두 글자가 類推에 의한 淸濁의 혼동이라기보다는 經本 혹은 經文에 따라서 淸濁이 다른 異體字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일본의 常用漢字表에는 「撲」의 字音은 「ボク」뿐이며, 漢和辭典에서는 慣用音으로 되어 있는데,<sup>28)</sup> 「撲」의 慣用音 「ボク」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여과 없이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② 峯(峰)[滂鍾乙平/敷容切]

〈표 9〉 「峯」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平濁) | フ(平濁) | フウ<br>(平濁)<br>[復踊反] | フ(平濁) | フウ<br>(平濁) | フ(平濁) | フ(平濁) | フ(平濁)<br>＜次狹次淸＞<br>[敷容切] | ホウ <sup>29)</sup><br>(平濁) | フ(平濁) | -    |

「峯」은 본 자료 전체에서 濁音으로 반영되어 있다. 『九條家本』의 反切은 [復踊反]으로 竝母의 反切上字는 濁音으로 읽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單字』도 동일

27) 鳩野惠介(2009:102)에서는 岡本勲의 논의를 참고하여 「撲」은 屋韻全濁字 「僕僕業穰 ……」 등의 諧聲符에 의한 「類推」로 보고 있다. 諧聲符에 의한 類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類推보다는 相通에 의한 全濁字音의 수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28) 『漢辭海』(2019:627)에서는 「撲」의 吳音으로 「ホク・ボク」 양쪽을 인정하고 있다.

29) 「峯」의 仮名 音注 「ホウ」는 누군가에 의해 후에 加筆한 것으로 보이는데, 字音形으로 보아 漢音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快倫音訓』에서는 「フ」로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快倫이 직접 加點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字音의 加點 상황의 비교를 위해 본고에서 底本으로 사용한 承應2年本(1653)과 같은 板本인 江戸前期本(刊年이 불분명함)을 비교로 제시하며, 두 자료 모두 일본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다. 본 자료 이외에 『華嚴經音義』 및 『大般若經』 등에서도 「峯」은 濁音으로 나타난다.

「峯」은 經文 「或在須彌峯」에 해당하며 新濁의 조건도 아니다. 『日相本』에서도 平濁으로 加點하고 있다는 점은 전통적인 讀誦音을 改變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隨音句』와 『補闕』에서는 전통적인 讀誦音을 韻書에 의해 改變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今更難改」라 하여 傳承音을 유지한 것도 보인다. 讀誦音 改變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日相이 「峯」을 濁音으로 讀誦한 것은 濁聲点의 誤記가 아니라면 수용 당시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濁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며 日相도 改變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大般若經音義』에 「峯」의 音注로 「奉」(並母)를 加點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小倉肇(1995:270)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沼本克明(1986:18)은 「豊」과 함께 吳音의 모태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注釋書 3種에는 「峯」의 清·濁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豊」(滂母)과 「逢」(並母)과 相通한 용례가 있다. 이 점도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峯」의 경우에는 『大般若經音義』의 音注 「奉」(並母)과의 관계로 보면 「逢棒蓬 ……」 등의 諧聲符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③ 幡[滂元平/孚袁切]

〈丑 10〉 「幡」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ハン<br>(上濁)<br>ハン<br>(去濁) | バン<br>(平新濁)<br>バン<br>(平濁) | ハン<br>(去濁)<br>[婆丹反] | ハン<br>(去濁) | ハン<br>(上) | -    | ハム<br>(上濁/<br>去濁) | ハム( )<br>[旛同切]<br>[又翻同] | ハン<br>(去濁) | -   | -    |

『快倫音義』에 加點된 「峯」의 字音注(10ウ8)

|                                                                                     |                                                                                     |
|-------------------------------------------------------------------------------------|-------------------------------------------------------------------------------------|
|  |  |
| 〈承應2年本〉                                                                             | 〈江戸前期本〉                                                                             |

「幡」은 본 자료에서는 대부분 濁音으로 나타나며, 『西教略音』은 淸音으로 되어 있다. 『快倫音訓』은 聲點 없이 「旛」과 同切의 글자로 되어 있으나 竝母인 「旛」도 淸音으로 되어 있다. 『九條家本』의 反切은 [婆丹反]으로 濁音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相本』에는 新濁으로 한 용례가 있으며 聲點이 누락된 곳도 한 예가 있다. 그 밖에 「幡」의 淸濁은 본 자료 이외에도 濁音이 우세하며,<sup>30)</sup> 이 점은 經文의 「幢幡」이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新濁에 의해 고정되었을 가능성도 보이지만 다른 經文에서는 新濁으로 볼 수 없는 곳이 있다.<sup>31)</sup>

小倉肇는 「幡」의 濁音은 「番」에 의한 類推로 간주하고 있으나 『快倫音訓』의 音注에 의하면 「番」의 類推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快倫音訓』에서는 「幡」圓ハム(去) [旛同切][又翻ト同] 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幡」은 「旛」의 異體字로 「旛」과 反切이 같으며 「翻」(滂母)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旛」(竝母)의 音注는 ハム(去)<次羽次淸>[孚袁切]로 淸音을 나타내고 있는데, 『韻會』의 <次羽次淸>과 反切上字에 의하면 去聲單点이 誤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sup>32)</sup> 본 자료에서 사용된 「旛」의 加點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旛」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ハン<br>(上濁) | →幡 <sup>33)</sup> | ハン<br>(去濁)<br>[婆丹反] | -    | -    | ハン<br>(上濁/<br>去濁)<br>幡同 | ハム<br>(上濁/<br>去濁) | ハム(去)<br><次羽次<br>淸><br>[孚袁切] | ハン(去)<br>幡同 | ハン<br>(上濁/<br>去濁)<br>幡<br>ハン<br>(平濁) | ハン <sub>左</sub> /<br>ホン <sub>右</sub> /<br>{バン}<br>(去濁)<br>[附袁] |

30) 小倉肇, 앞의 책 資料篇, 1995, 358면. 『法華經』 이외에 高山寺本『新譯華嚴經音義』에 Хан(上濁)·安田八幡宮本『大般若經』에 Хан(去濁)과 같이 濁音으로 加點된 것이 보인다.

31) 『山家本』 「各千幢幡」(序-124) 「以華香幡蓋」(方-203), 「繪蓋幢幡」(法-13), 「執持幡蓋」(分-30)

32) 다만 『韻會』에는 「翻旛幡」 모두 <次宮次淸>[孚袁切]로 되어 있지만, 唇音의 聲母 표시를 <羽>로 하고 있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33) 信-36에 해당한다.

快倫은 『韻會』를 重用하여 清濁을 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전통을 존중하여 字音을 改變하지는 않았다. 다만 「旛」의 聲點이 誤記가 아니라면 清音으로 『韻會』를 따라 改變한 것이 된다.

한편 快倫 이외에 『心空音訓』『承應本』에도 「旛」의 音注에 「幡司」이라 하여 두 글자를 같은 字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九條家本』에서도 「幡旛」 모두 ハン(去濁)[婆丹反]으로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九條家本』의 反切에 의하면 「幡旛」은 이른 시기부터 같은 글자로 인식하여 濁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幢幡」이라는 經文도 「幡」을 濁音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幡旛」을 混用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데 『日相本』에서는 『山家本』과는 달리 같은 經文에 아래와 같이 「幡」을 사용한 곳이 있다.

〈표 12〉 『法華經』 經文 중 「幡旛」의 混用例

| 所在   | 山家本      | 日相本       |
|------|----------|-----------|
| 信-36 | 垂諸華旛(上濁) | 垂諸華幡(平新濁) |

『日相本』의 信-36에서는 「旛」 대신 「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經文 이외에 <표 10>과 같이 『心空音訓』과 『快倫音義』·『承應本』에서도 「旛」은 「幡」과 같은 글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注釋書의 설명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序]唇<sup>ノ</sup>次清音。而<sup>ヲ</sup>讀<sup>レ</sup>濁<sup>ニ</sup>例如<sup>ニ</sup>豐<sup>ノ</sup>扑<sup>ノ</sup>撫<sup>ノ</sup>是也。有人疑<sup>テ</sup>日幡與<sup>レ</sup>翻同音也。當<sup>ニ</sup>讀<sup>レ</sup>ホン耶ト。淵案<sup>ニ</sup>幡<sup>ハ</sup>屬<sup>ニ</sup>元<sup>ノ</sup>韻。元<sup>ノ</sup>吳音グワン。故<sup>ニ</sup>幡亦讀<sup>レ</sup>バン。猶<sup>ニ</sup>蕃<sup>ノ</sup>藩<sup>ノ</sup>樊<sup>ノ</sup>番<sup>ノ</sup>纂<sup>ノ</sup>晚<sup>ノ</sup>讀<sup>レ</sup>ハント。

『裏書』 p.22

[序]…… 旛<sup>ハ</sup>說文<sup>ニ</sup>从<sup>ニ</sup>放<sup>ニ</sup>番<sup>ノ</sup>聲<sup>ヲ</sup>ト イヘリ。作<sup>ル</sup>幡旛<sup>ニ</sup>竝<sup>ニ</sup>非也。

『補闕』 二15ウ5<sup>34)</sup>

34) 日相은 序品の 「各千幢旛」의 字音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日相本』의 經文에는 「幡」으로

注釋書의 내용에 의하면 宗淵이나 日相 모두 韻書를 통해 「幡旛」의 聲母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두 글자를 混用하여 쓰는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幡」이 濁音으로 전승되어 온 것은 이른 시기부터 經文 중에서 「旛」과 함께 混用했거나 혹은 이로 인해 「幡旛」의 淸濁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이며, 이 점은 諧聲符에 의한 단순 類推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山家本』 『日相本』 중 한 쪽이 中古音 聲母와 일치하지 않는 용례

幫·滂母에 속한 글자 중 『山家本』이나 『日相本』 한 쪽이 中古音 聲母와 일치하지 않는 용례는 6字이다.

幫母(6字) : 豐(東韻3) · 夫(虞韻) · 飽(肴韻) · 臂(淸韻) · 壁(淸韻) · 分(文韻)  
 滂母(0字) : -

##### 1. 幫母

##### ① 豐[滂東3乙平/敷空切]

〈표 13〉 「豐」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フウ<br>(平濁) | ブ<br>(平新濁)<br>フ(平) | -    | フ(平濁) | フ <sub>左</sub> /<br>ホウ <sub>右</sub><br>(平濁) | フ(平濁) | フ(平濁) | フ(平濁)<br><次羽次淸><br>[敷中切] | フウ<br>(平濁) | フ<br>(平濁) | フウ <sub>左</sub> /<br>フ <sub>右</sub><br>[敷空] |

「豐」은 「安穩豐樂」(譬喩品)과 「無不豐足」(藥草品)에 출현하며, 본 자료에서는 『日

되어 있다.

相本』과 『淨土音義』를 제외하고 모두 濁音으로 加點되어 있다. 小倉肇의 資料篇二(1995:490)에 의하면 法華經音義 寬正本(1464)·元和本(1617)을 제외하면 모두 濁音(平濁)으로 나타난다. 『九條家本』은 字例가 없으므로 反切을 알 수 없으나 『單字』에는 [復(平濁)供(平)]으로 되어 있어 濁音으로 讀誦한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또한 『華嚴經音義』와 『大般若經』에도 濁音(平濁)으로 되어 있어 『法華經』 이외의 佛典에서도 濁音으로 讀誦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자료에 의하면 「豊」을 濁音으로 읽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聲韻學적으로는 해석이 어렵다.

『日相本』에서도 譬喩品の 經文에서는 濁音으로 읽고 있으나 이는 新濁(連濁)에 의한 濁音이므로 『山家本』 등의 本濁과는 다르다. 본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 전반적으로 濁音으로 나타나는 점이 新濁 혹은 濁聲点의 誤記 등에 의한 淸濁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法華經』 및 『華嚴經』 등의 經文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       |                            |
|-------|----------------------------|
| 法華經   | 「安穩豊(平濁)樂」 「無不豊(平濁)足」      |
| 新譯華嚴經 | 「名曰豊(平濁)溢」 「年穀豊(平濁)儉」      |
| 大般若經  | 「凡所演說豊(平濁)義味辯」 「…安穩豊(平濁)樂」 |

여기서 한 가지 참고가 되는 논의가 있다. 高松正雄(1982:253-254)에 의하면 中古音과 淸濁이 맞지 않는 字音에 있어서 『單字』의 反切注를 통해 字音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 資料          | 母字    | 直音注         | 『法華經單字』의 反切注 |
|-------------|-------|-------------|--------------|
| 『大般若經字抄』    | 据(見母) | 巨(群母)       | 去於反          |
| 『金光明最勝王經音義』 | 郝(穿母) | 石(禪母)       | 此逆反          |
| 『大般若經字抄』    | 傲(疑母) | 號(匣母)/告(見母) | 告(見母)：後到反    |

高松正雄은 母字와 淸濁이 맞지 않는 直音注가 『單字』에서는 母字와 淸濁이 일치

35) 島田友啓, 앞의 1964 책, 110면.

36) 「安穩豊樂」 외에는 前接字가 모두 入聲에 속하는 글자이다.

하는 점을 들어 直音注가 당시 일본인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母字의 淸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 논의를 그대로 「豊」의 濁音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單字』에는 [復(平濁)供]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次淸인 滂母字를 濁音으로 읽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에는 이르지 못한다. 반면 沼本克明(1986:18)은 「豊峯ブ」와 같이 濁音으로 나타나는 것은 吳音의 모태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바 있다. 沼本克明의 견해와 같이 中古音 혹은 당시 方言音에 의한 영향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중국 通假字도 참고가 될 듯하다. 通假字 사전에 의하면 「豊」(滂母)과 「逢」(並母)이 相通했다는 내용이 있다.<sup>37)</sup>

(前略)《史記·天官書》‘豊’作‘逢’. 按“逢”爲“豊”之借字. 奉敷鄰紐, 均爲重唇音, 聲極相近, 鍾東古韻同部. 故“逢”爲“豊”爲上古同音借字.

『單字』의 反切上字나 중국의 通假字 등에 의하면 「豊」을 濁音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는 듯하다. 『金光明最勝王經音義』에도 「逢」의 直音注로 「豊」이 加點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이 直音注가 通假字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逢」의 聲點으로 平聲單点(朱点)이 加點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注釋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譬]豊韻會平聲東<sup>フ</sup>曰敷馮<sup>フ</sup>切次宮次淸<sup>ト</sup>イヘリ。韻鏡<sup>ニハ</sup>唇音<sup>ノ</sup>次<sup>ノ</sup>淸<sup>ニ</sup>屬<sup>ス</sup>然<sup>ラハ</sup>  
淸音<sup>ナル</sup>分明也。世俗豊後豊前是濁<sup>ル</sup>トテ。今<sup>モ</sup>濁<sup>テ</sup>ヨマン<sup>ト</sup>云<sup>ハ</sup>不可ナリ。連聲<sup>ノ</sup>  
時新濁<sup>テ</sup>濁<sup>ルト</sup>イハミ可也。

『補闕』 三2ウ5

[藥]豊<sup>ハ</sup>淸音也。……

『補闕』 四3オ6

宗淵과 日遠은 「豊」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豊」을 濁音으로 讀誦한 원인은

37)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古籍出版社, 2008, 449면.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宗淵은 다른 내용에서도 전통적인 讀誦音を 존중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心空 등의 讀誦音を 그대로 계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日相은 法華經의 讀誦音과 같이 世俗에서도 濁音으로 읽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韻會』와 『韻鏡』 등에 의해 清音으로 改變했다.

「豊」이 濁音으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명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豊」은 常用漢字音으로서 漢音인 「ホウ」가 일반적인 字音이다. 그러나 漢和辭典에는 이 字音 이외에 「豊」의 濁音 「ブ」가 慣用音으로 규정되어 있다.<sup>38)</sup> 이 慣用音은 상술한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이 중 法華經讀誦音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② 夫[幫虞乙平/甫無切]

〈표 14〉 「夫」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フ<br>(上濁) | ブ<br>(平新濁)<br>[マ] | フ(上濁/去濁)<br>[房瀆反] | フ(上)<br>[房瀆反] | フ(上濁) | フ(上濁) | フ(上濁/去濁) | フ(上濁)<br><次羽濁><br>[逢夫切] | フ( ) | フ(上濁) | フ左/<br>フ右<br>[甫無] |

「夫」는 『廣韻』에 의하면 幫母 이외에 竝母[防無切]의 字音도 있으며, 字釋을 보면 幫母는 「丈夫」, 竝母는 「語助」이다. 經文 「調御丈夫」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幫母에 해당한다. 우선 『山家本』은 上濁으로 加點되어 있고, 『日相本』은 新濁으로 되어 있어 本音은 清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諸 音義에는 모두 濁音으로 나타나며 『西教音義』에만 上濁 이외에 上聲單点이 加點된 용례가 있다. 이는 개찰자가 중복 출현한 것으로 上聲單点이 幫母의 聲點인지 誤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九條家本』과 『單字』의 反切은 [房瀆反]으로 동일하며 反切上字를 「房」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濁音으로 인식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聲點表記가 없는 자료에서 「夫」로 加點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38) 『漢辭海』(2019:1360)에서는 「豊ブ」를 吳音으로 인정하고 있다.

小倉肇(1995:266)은 「夫」의 濁音에 대해서 母胎가 된 原音에 있어서 幫母의 音이 없었던지, 並母 쪽에도 「丈夫」의 뜻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모태가 된 原音이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해 온 중국의 남부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中古音의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母胎音에 幫母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坂井健一(1975:342~343)의 논의는 참고가 된다. 『經典釋文』音義家の 字音에서는 清·濁의 混同例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이며, 唇音의 全清·次清과 全濁과의 混同例가 91例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混同例는 「釋文音義家の 개별적인 특색」이라 했기 때문에 「原音」에 있어서의 字音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하 「夫」가 사용된 經文과 注釋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法華經』에 사용된 「夫」의 용례

| 所在         | 山家本       | 日相本                                   |
|------------|-----------|---------------------------------------|
| 序-145/授-74 | 調御丈夫(上濁)  | 調御丈夫(平新濁)                             |
| 信-195      | 取相凡夫(上濁)  | 取相凡 <sup>マ</sup> 夫(上) <sub>[ママ]</sub> |
| 壽-113      | 爲凡夫(上濁)顛倒 | 爲凡夫(平新濁)顛倒                            |
| 嚴-94       | 其淨德夫(上濁)人 | 其淨德夫(平新濁)人                            |

「夫」는 주로 「丈夫」·「夫人」이라는 어휘에서 사용하고 있다. 『山家本』은 本濁으로 加點하고 있으며, 嚴-94에서는 新濁의 조건이 아닌 入聲字 뒤에서도 上濁으로 加點되어 있다. 『日相本』은 新濁으로 加點하고 있어 韻書에 의해 淸音으로 改變한 것으로 생각된다. 『裏書』와 『隨音句』에는 「夫」의 淸濁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없으나 『日相本』이 韻書에 의해 淸濁을 改變했다는 점은 『補闕』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五〕…丈夫<sup>フツフ</sup>平聲虞韻<sup>ニ</sup>入清濁<sup>ニ</sup>二音アリ。清音<sup>フ</sup>時<sup>ハ</sup>夫<sup>フ</sup>(フ<sup>左</sup>/ブ<sup>右</sup>)人<sup>ジン</sup>(ジン<sup>左</sup>/ニン<sup>右</sup>)。丈夫<sup>フツフ</sup>等也。丈夫<sup>フツフ</sup>夫<sup>フ</sup>濁<sup>ニ</sup>新濁<sup>ニ</sup>ナリ。夫<sup>フ</sup>夫婦<sup>フフウ</sup>清音<sup>フ</sup>ヨミ也。濁音<sup>フ</sup>時<sup>ハ</sup>扶<sup>フ</sup>字<sup>ジ</sup>等類<sup>ニ</sup>。ソレ。カノナド、ヨマセタリ。

『補闕』 四12才9

〔嚴〕夫ハ平聲ニ入テ清濁二音アリ。丈夫夫人ナドノ時ハ清音ナリ。丈夫ノ時濁ルハ連

聲ナリ。儒書<sup>フジン</sup>夫人呼<sup>フ</sup>尤<sup>モ</sup>聞<sup>エ</sup>タリ。佛家<sup>フニト</sup>夫人呼<sup>フ</sup>連聲トモイハレズ。新濁<sup>ハ</sup>難<sup>シ</sup>レ云<sup>ヒ</sup>。不審<sup>云</sup>。但<sup>シ</sup>儒書<sup>ノ</sup>清音<sup>ヲ</sup>佛書<sup>ニハ</sup>濁<sup>テ</sup>ヨム<sup>コ</sup>多<sup>シ</sup>其<sup>ノ</sup>例歟。

『補闕』五28ウ4

위 내용에 의하면 「夫」가 虞韻平聲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韻書나 韻鏡 등을 참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佛家<sup>フニト</sup>夫人呼<sup>フ</sup>連聲トモイハレズ。新濁<sup>ハ</sup>難<sup>シ</sup>レ云<sup>ヒ</sup>。不審<sup>云</sup>。但<sup>シ</sup>儒書<sup>ノ</sup>清音<sup>ヲ</sup>佛書<sup>ニハ</sup>濁<sup>テ</sup>ヨム<sup>コ</sup>多<sup>シ</sup>其<sup>ノ</sup>例歟」라고 한 것은 新濁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濁音으로 읽는 것은 이상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이어서 「但<sup>シ</sup>儒書<sup>ノ</sup>清音<sup>ヲ</sup>佛書<sup>ニハ</sup>濁<sup>テ</sup>ヨム<sup>コ</sup>多<sup>シ</sup>其<sup>ノ</sup>例歟」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해석은 全濁字에 있어서 漢音과 吳音의 清濁 대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즉 漢音讀인 儒書에서 夫人을 「フジン」으로 읽는 것은 「夫」의 幫母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唐代의 濁音清化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讀誦音으로 수용한 것은 並母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幫母의 字音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佛教教學 내지 讀誦의 場에서도 「夫」의 聲母가 幫母와 並母의 두 字音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清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宗派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山家本』 및 法華經音義에서 「夫」가 濁音으로 반영된 것은 小倉肇의 견해와 같이 原音에 幫母가 없었다거나 並母에도 「丈夫」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原音에 의한 반영보다는 讀誦音으로서 「丈夫」「凡夫」 등과 같은 常用 語彙에 의해 新濁이 本濁으로 固定化하여 濁音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 ③ 飽[幫肴上/博巧切]

〈丑 16〉「飽」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ハウ<br>(上濁) | ハウ<br>(上) | ハウ<br>(去濁)<br>[部 <sub>稻反</sub> ] | ハウ<br>(去濁) | -    | ハウ<br>(上濁/<br>去濁) | ハウ<br>(上濁/<br>去濁) | ハウ<br>(去濁)<br><羽清><br>[博巧切] | ハウ<br>(去濁) | ハウ<br>(上濁/<br>去濁) | ハウ <sub>左</sub> /<br>ヒヤウ <sub>右</sub><br>[博巧] |

「飽」는 본 자료에서는 『日相本』만 淸音으로 나타나며 『山家本』과 諸 音義에서는 모두 濁音으로 반영되어 있다. 小倉肇의 資料에도 濁聲点 표기가 없는 몇 개의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濁音으로 나타난다.<sup>39)</sup> 『九條家本』과 『單字』는 [部稻反]으로 같으며 反切上字 「部」는 並母이므로 이른 시기부터 讀誦音은 濁音으로 했다고 생각된다. 『快倫音訓』에서도 『韻會』의 <羽淸>을 인용하여 淸音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字釋에 [博巧切]이라는 反切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快倫이 인용한 [博巧切]은 『增修互註禮部韻略』(이하 『增韻』)의 反切과 일치하나 淸濁을 제시한 <羽淸>은 『韻會』의 <宮淸音>과는 다르다.<sup>40)</sup> 快倫에 있어서도 韻書를 참고하여 淸濁의 분별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讀誦音은 去濁으로 傳承音을 유지하고 있어 日相의 字音과는 차이가 있다.

[譬]…… 飽<sup>ハ</sup>韻會上聲巧<sup>ニ</sup>博巧<sup>ノ</sup>切宮淸音<sup>ト</sup>イヘリ。淸<sup>シテ</sup>ヨムヘシ。或人云常飽<sup>ベウ</sup>

滿飽食<sup>マンバウシキ</sup>ニゴル故是モ濁<sup>テ</sup>ヨムヘシト云リ。經<sup>ニ</sup>其<sup>ノ</sup>用捨イラサル事也。

『補闕』 三15才8

(廣狹) ハウ 放方坊<sup>ハ</sup>房<sup>ハ</sup>謗傍<sup>ハ</sup>膀旁<sup>ハ</sup>泡飽

『隨音句』 下30才4

『裏書』에는 「飽」의 字音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山家本』에서 「飽」를 濁音으로 읽은 聲韻學적인 淵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宗淵은 다른 용례와 같이 中古音과 淸濁이 다르더라도 전통적인 讀誦音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반면 日相은 『補闕』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韻會』의 反切을 근거로 淸音으로 改變하고 있다. 日遠은 『隨音句』에서 「飽」의 淸濁에 대해 특별한 해석은 하고 있지 않지만, 卷末 廣狹의 설명에서 ハウ의 용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淸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39) 小倉肇(1995:265)는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字音注를 참고로 하여 「飽」에 淸·濁의 兩音이 있었다고 했다.

40) 『韻會』에 실린 「飽」의 淸濁과 反切은 [博巧切(宮淸音)]이며, 상술한 『韻會』의 聲母表를 참고하면 <羽>는 喉音系에 해당하므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熊忠, 『古今韻會舉要』 影印本, 卷14, 大化書局(臺灣), 1979, 271면.

「飽」의 清濁은 현재로서는 諸 자료를 통해 濁音が 우세하다는 점은 말할 수 있으나 聲韻學적인 측면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특히 『法華經』 經文에서는 「食之既飽」(譬-242)에서 한 예 보이는데 新濁의 조건도 아니다. 참고로 『大般若經』 字音点과 音義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大般若經』 字音点 · 音義에 加點된 「飽」의 용례

| 資料             | 所在         | 經文               | 音注     |
|----------------|------------|------------------|--------|
| 安田八幡宮本 『大般若經』  | 第6冊1027中23 | 與化有情改令飽滿         | ハウ(去濁) |
| 安田八幡宮本 『大般若經』  | 第7冊745上3   | 施幼有情改令飽滿         | ハウ(去)  |
| 葉師寺甲本 『大般若經音義』 | 第7冊978下28  | 聞大士說希有食名悉已飽滿況當得食 | 房      |

『大般若經』 字音点 · 音義의 상황도 『法華經』과 크게 다르지 않다. 「飽滿」이라는 어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仮名注와 直音注가 있다. 仮名注가 加點된 문장에서는 新濁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第7冊745上3에서는 去聲單点으로 되어 있고, 直音注가 加點된 곳은 「已」에 이어지므로 新濁에 의한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위 용례에서는 去聲單点을 제외하고 去濁과 直音注 「房」(並母)을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大般若經』에서도 濁音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飽」는 讀誦音으로서 濁音を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中古音의 측면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물론 「抱抱飽飽……」(並母)과 같이 다른 용례에서 언급한 類推나 諧聲符와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 ④ 𪛗[幫清開入/必益切]

「𪛗」은 『山家本』은 ヒヤク(入濁)으로 濁音이지만 『西教略音』 『快倫音訓』에서는 清音으로 나타나며 이외의 자료에서는 入濁으로 되어 있다. 단 『日相本』에서 ヒ<sub>[マ]</sub>ヤク(入新濁)(譬-358)로 加點된 부분이 있다. 『日相本』의 경우 「窮逝象 ……」 등과 같은 全濁字도 新濁으로 加點한 예가 있고 信-136에서도 入濁으로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濁点의 누락으로 판단된다. 이 加點을 清音의 新濁으로 해석한다면 『西教略音』과 같은 加點例가 되지만 『西教音義』에서는 入濁으로 加點하고 있으므로 『西教略音』은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sup>41)</sup>

『九條家本』의 反切은 [必昔反]으로 『單字』와 동일하게 幫母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𡵓」은 『法華經』經文의 「𡵓𡵓𡵓𡵓」(譬-358)에 보이며 鼻音韻尾에 이 어지므로 『日相本』과 같이 新濁이 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같은 韻의 竝母 「𡵓」의 清濁도 『山家本』과 『日相本』에서는 入濁으로 잘 반영되어 있으나 音義에서는 清濁 표기에 혼동이 보이므로 「𡵓」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은 音義에 기재된 「𡵓𡵓」의 加點 상황이다.

〈표 18〉 諸 音義에 加點된 「𡵓𡵓」의 字音注 및 聲點

|           | 經文           | 所在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
| 𡵓<br>(幫母) | 𡵓𡵓𡵓𡵓         | 譬358        | [必昔反] | ヒヤク<br>(入濁) | ヒヤク<br>(入) | ヒヤク<br>(入濁) | -           | -                 | -           | ヒヤク<br>(入濁) |
| 𡵓<br>(竝母) | 悶絕𡵓地<br>迷悶𡵓地 | 信49<br>信136 | [毗若反] | ヒヤク<br>(入)  | ヒヤク<br>(入) | -           | ヒヤク<br>(入濁) | ヒヤク<br>(入)<br>辟同切 | ヒヤク<br>(入濁) | -           |

「𡵓𡵓」은 譬喩品과 信解品에서 각각 다른 經文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九條家本』과 『西教音義』에서는 幫母와 竝母를 구별하여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心空과 快倫의 音義에서는 清濁의 혼동이 보이며, 다른 자료에서도 散見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혼동의 원인은 異體字인 「𡵓」과 「𡵓」을 經文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快倫은 「𡵓」의 字釋에서 「辟」와 同切이라 제시하고 있고 「…亦作𡵓」이라 설명하고 있다. 「辟」은 幫母[必益切]와 竝母[房益切]로 두音が 있으며 『快倫音訓』의 字釋에는 幫母[必益切]와 竝母[毗亦切]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𡵓」의 聲點은 入聲單點을 加點하고 있다. 心空과 快倫의 音義에는 「𡵓」과 「𡵓」중 한 쪽만을 掲出字로 하고 있고 清·濁 표기에 혼동이 보이는 점은 두 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注釋書を 통해서도 알 수 있다.

[信]𡵓<sup>ヒヤク</sup>箋難<sup>ヒヤク</sup>曰毗益切<sup>ヒヤク</sup>濁音也.

『補闕』三28才6

41) 西教寺本은 『法華經音義』(篇立音義)와 『法華經略音』(卷音義·同音異字)를 合冊하여 하나의 音義로 하고 있다.

『裏書』와 『隨音句』에는 「壁」의 字音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宗淵은 信解品에 사용된 「蹠」의 해석에서 「尊勝本=云白<sup>ノ</sup>音<sup>ヲ</sup>」(『裏書』 p.71)이라 하고 있다. 「蹠」는 『山家本』·『日相本』 모두 入濁으로 加點하고 있고 尊勝本の 直音注 「白」도 「蹠」의 竝母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壁」의 해석은 없으며 『山家本』에는 入濁으로 加點하고 있는데, 이는 宗淵도 「壁」과 「蹠」을 구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日相은 『補闕』에서는 信解品 「悶絕<sup>ヒツツ</sup>壁<sup>チ</sup>·地<sup>チ</sup>文」에 사용된 「壁」은 濁音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日相本』에는 「悶絕蹠<sup>(去濁)</sup>地」로 되어 있다. 『日相本』과 『補闕』의 글자가 다른 것은 日相도 마찬가지로 「壁」과 「蹠」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는 「貝」에서도 언급했듯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經文에서 동일한 諧聲符를 갖지만 清濁이 다른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대체해서 사용한 것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례는 단순한 類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⑤ 壁[幫青開入/北激切]

〈표 19〉 「壁」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教音義        | 西教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ヒヤク<br>(入濁) | ビヤク<br>(入新濁) | [丘昔反] | ヒヤク<br>(入濁) | ヒヤク<br>(入) | ヒヤク<br>(入濁) | ヒヤク<br>(入濁) | ヒヤク<br>(入)<br>[辟同切] | ヒヤク<br>(入濁) | ヒヤク<br>(入) | -    |

「壁」은 본 자료에 있어서 清濁이 나뉘어 있다. 『山家本』은 入濁으로, 『日相本』은 入新濁으로 幫母를 나타내고 있다. 『九條家本』의 反切은 [丘昔反]이며, 反切上字로 쓰인 「丘」는 『單字』의 [必昔反][兵昔反]을 참고하면 「兵」(幫母)의 誤記로 생각된다.<sup>42)</sup> 『九條家本』의 反切上字가 「兵」이라면 두 자료 모두 「壁」의 讀誦音은 清音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西教音義』·『快倫音訓』·『承應本』도 入聲單点이 加

42) 『單字』의 反切上字 「兵」에는 去濁으로 加點되어 있으나, 小倉肇(1995:265)는 「兵」이 濁音字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點되어 있으므로 淸音を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西教音義』·『心空音訓』·『心空音義』 『快倫音義』에서는 濁音으로 되어 있다.

우선 『快倫音訓』에는 「蹠」(竝母)과 같은 [辟同切]이라는 설명이 있다. 반면 『快倫音義』에는 入濁으로 하고 있어 快倫도 淸濁을 혼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며 西教寺本도 동일하다. 그러나 『快倫音訓』에서 淸音으로 加點한 것은 韻書의 反切에 의해 改變한 字音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諧聲符에 의한 혼동도 충분히 상정되지만 『快倫音訓』은 『韻會』를 인용하여 淸·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의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

『九條家本』이나 『單字』의 反切上字에 의하면 「壁」의 讀誦音은 당시 幫母(淸音)로 잘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法華經 經文에서는 「牆壁頽落」(譬喩品)과 같이 「牆壁」이라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고, 鼻音韻尾에 이어지기 때문에 『日相本』은 新濁으로 加點한 것이다. 「壁」은 管見의 범위에서 『山家本』과 『日相本』 내에서는 다른 글자로 대체한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료의 加點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표 20〉 『法華經』 이외의 자료에 加點된 「壁」의 音注

| 資料                              | 所在                  | 經文        | 音注      |
|---------------------------------|---------------------|-----------|---------|
| 安田八幡宮本 『大般若經』·<br>無窮會本 『大般若經』 등 | 第5冊45中3<br>第7冊22下28 | 山崖牆壁直過如空  | ヒヤク(入濁) |
| 高山寺本 『新譯華嚴經音義』                  | 80卷182下             | 無作無受如草木石壁 | ヒヤク(入濁) |
| 貞元 『華嚴經音義』                      | 40卷683中             | 遷度石壁      | ヒヤク(入濁) |

『大般若經』에서는 『法華經』과 같이 「牆壁」이라는 어휘에 사용되고 있고 入濁으로 加點되어 있다. 『華嚴經音義』에서는 「石壁」이라는 어휘에 사용되고 있고 『大般若經』과 동일하게 入濁으로 加點되어 있다. 「牆壁」은 新濁의 조건이 되지만 「石壁」은 入聲韻尾에 이어지므로 新濁에 의한 濁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濁音으로 고정된 字音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壁」은 적어도 平安 말기까지는 淸音を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牆壁」과 같은 新濁이 되는 讀誦音이 언제부터인가 本濁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蹠」이 濁音으로 된 것과의 연관성도 고려할 부분이다. 小倉肇(1995:265)는 「壁」이 濁音으로 출현하는 것은 至德本(1386年刊)부터라 했으나, 본 자료에서 사용한

西敎寺本 『法華經音義』(1365)에 入濁으로 加點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西敎寺本의 경우 原本이 아닌 翻字에 의한 것이므로 재차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翻字本에 이상이 없다면 「壁」이 濁音으로 출현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分[幫文平/府文切]

〈표 21〉 「分」(幫母)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敎音義  | 西敎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フン(平濁)<br>フン(平)<br>フン(去) | フン<br>(平) | -    | (平/去) | -    | -    | -    | -    | -    | -   | フン <sub>左</sub> /<br>フン <sub>右</sub><br>[府文] |

〈표 22〉 「分」(竝母)의 字音分韻表

| 山家本        | 日相本        | 九條家本                         | 西敎音義 | 西敎略音       | 心空音訓         | 心空音義         | 快倫音訓                                | 快倫音義  | 承應本          | 淨土音義                                                  |
|------------|------------|------------------------------|------|------------|--------------|--------------|-------------------------------------|-------|--------------|-------------------------------------------------------|
| フン<br>(平濁) | ブン<br>(去濁) | フン<br>(平濁)<br>[不云反]<br>[復雲反] | -    | フン<br>(平濁) | フン<br>(平濁/去) | フン<br>(平濁/去) | フム<br>(平濁/<br>去/㉔)<br><次羽濁><br>[音紛] | フン( ) | フン<br>(平濁/去) | フン <sub>左</sub> /<br>フン <sub>右</sub><br>(去濁)<br>[扶·間] |

「分」은 幫母와 竝母의 두 음이 있으며 清·濁에 따라 사용 어휘가 다르다. 본 자료에서도 竝母는 『西敎音義』를 제외하고 濁音으로 나타나며 音義에 따라 幫母의 聲點도 함께 加點하고 있다. 『九條家本』의 反切은 [不云反][復雲反]으로 幫母와 竝母 두 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心空音訓』 『心空音義』 『承應本』에서도 平濁과 去聲單点 이 함께 加點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음을 모두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快倫音訓』도 竝母의 字音を 心空本과 마찬가지로 平濁과 去聲單点을 加點하고 있고 『韻會』의 <次羽濁>을 인용하여 竝母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音紛](滂母)이라는 直音注를 추가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分」의 清音을 의식하여 제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法華經』經文에서는 「分」의 淸濁의 차이에 따라 어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注釋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序]分諸本濁。淵案<sup>二</sup>分身分別之分<sup>レ</sup>相承讀<sup>レ</sup>淸<sup>二</sup>。分折分散分配分附分法之分<sup>レ</sup>讀<sup>二</sup>濁<sup>二</sup>。蓋淸濁隨<sup>二</sup>音便<sup>二</sup>也。

『裏書』 p.27

[序]分<sup>ノ</sup>字依<sup>テ</sup>淸濁<sup>二</sup>義カハレリ。平聲淸音<sup>ノ</sup>時<sup>ハ</sup>。ワクル。ワカツト云ヨミアリ。去聲濁音<sup>ノ</sup>時<sup>ハ</sup>。ワカルハ。ワカレタリトヨマセタリ。今<sup>ノ</sup>分布<sup>ハ</sup>舍利<sup>ヲ</sup>ワケヒロムル義也。淸音<sup>ナル</sup>明<sup>ケシ</sup>。

『補闕』 二19ウ4

[序]分<sup>ノ</sup>字。一部<sup>ノ</sup>內<sup>二</sup>。甚多<sup>シ</sup>。淸濁平去不同也。大體。平聲<sup>ハ</sup>淸音<sup>ニ</sup>ノ。分別判分施等<sup>ノ</sup>義也。去聲濁音<sup>ハ</sup>分位<sup>ノ</sup>義。爲<sup>レ</sup>本。然<sup>レ</sup>則今<sup>ハ</sup>可<sup>レ</sup>用<sup>二</sup>平聲淸音<sup>一</sup>歟。而<sup>モ</sup>常<sup>ニ</sup>ハ舍利<sup>ノ</sup>分布<sup>ト</sup>テ。濁音<sup>ニ</sup>用來<sup>レト</sup>モ。濁<sup>ハ</sup>義疎<sup>ク</sup>。淸<sup>ハ</sup>義親<sup>キ</sup>歟。韻會<sup>五卷平文</sup>曰。方文切。次宮淸音。分別也。……

『隨音句』 上8才10

위 내용은 經文 중 「分布」에 대한 설명이다. 宗淵은 諸本에서 濁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을 존중하여 「分布諸舍利」(序-229)에서만은 濁音으로 加點하고 있지만, 日相과 日遠은 韻書를 인용하여 幫母의 淸音으로 改變하고 있다. 並母에 대한 설명은 『補闕』에서 찾을 수 있다.

[譬]分<sup>ハ</sup>去聲濁音分位<sup>ノ</sup>之義也。濁<sup>ハ</sup>ヨムベキ也。

『補闕』 三1才7

[五]……分<sup>ハ</sup>去聲濁音分位<sup>ノ</sup>之義也。

『補闕』 四13才1

「分」이 並母로 사용된 經文은 譬喻品 「得佛法分<sup>二</sup>文<sup>一</sup>」, 五百品 「得少涅槃分<sup>二</sup>文<sup>一</sup>」 등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法華經讀誦音으로서 「分」을 淸濁에 의해 구별하여 사용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幫母：分別・分布・分身・分判・分施 등

並母：分折・分散・分配・分附・分法・分位 등

본 자료에서도 「分」은 어휘에 따라 淸濁을 잘 구별하고 있으나 『山家本』의 經文 序品 「分布諸舍利」에서는 フン(平濁)으로 되어 있다. 日遠은 이 점에 대해 『隨音句』에서 「而<sup>モ</sup>常<sup>ニハ</sup>舍利<sup>ノ</sup>分布<sup>トテ</sup>。濁音<sup>ニ</sup>用來<sup>レトモ</sup>。濁<sup>ハ</sup>義疎<sup>ク</sup>。淸<sup>ハ</sup>義親<sup>キ</sup>歟。」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는 「分布」라는 어휘의 「分」은 幫母平聲으로 韻書에 의하면 淸音으로 읽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讀誦音으로서는 폭 넓게 濁音으로 읽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宗淵은 이를 전통적인 讀誦音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어휘에 따른 淸濁을 다른 經文에서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誤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日遠과 日相은 韻書에 의해 淸音으로 改變하고 있다.

## 2. 滂母

用例 없음.

## V. 나오며

法華經讀誦音은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다수 발견되는데, 근세에 들어와 反切音과 현실 讀誦音에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올바른 讀誦音을 찾고자 字音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法華經字音學에서는 字音의 정비에 많은 異本の 校合과 함께 다양한 韻書類를 이용하였지만, 宗派에 따라 혹은 같은 宗派라도 승려 개인의 字音觀에 따라 字音의 정비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讀誦音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韻書에 의해 字音을 改變할 것인지가 중요한 대상이 된 것이다. 法相宗의 『法華經釋文』에 加點된 反切은 중국의 反切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吳音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宗淵이 속한 天台宗

에서는 전통적인 讀誦音を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日遠과 日相이 속한 日蓮宗에서는 韻書 등을 인용하여 字音を 改變하였다. 法華經字音學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字音의 정비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近世『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 字音의 정비는 宗派에 따라 혹은 같은 宗派라도 學僧에 따라 다르다.
- ② 字音を 정비하는데 있어서『山家本』(天台宗)은 전통적인 傳承音を 유지하는 방향으로,『日相本』(日蓮宗)은 韻書에 의해 改變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③ 그러나『日相本』의 淸濁의 改變은 일괄적이지 않으며, 이렇게 정비된 字音은 讀誦音과는 이질적인 것이 많다.
- ④ 전통적인 讀誦音(吳音)은 현대 漢和辭典에서는 慣用音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다.<sup>43)</sup>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 검토한『山家本』『日相本』및 字音注釋書에는 吳音의 변화와 수용 과정이 그대로 담겨있으며, 이를 통해 吳音의 정착 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中古音의 틀에서 벗어나는 漢字音에 대해 기존의 논의에서는 濁聲点의 누락 또는 諧聲符에 의한 단순한 類推, 淸濁의 혼동<sup>44)</sup> 등과 같은 해석에 치중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山家本』·『日相本』및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法華經音義』, 그리고 注釋

43) 肥爪周二(2016:99)는 慣用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より重要なのは、伝統的なタイプの漢和辭典に掲載されている漢字音(吳音・漢音)が、しばしば中國原音を基準にして、人為的・演繹的に創作されたものであって、現在はもちろん、過去の文献資料にも見いだせないような「幽靈漢字音」であることが少なくないからである. 더불어 본고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통해 吳音의 實狀과 淵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歸納的 방법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漢和辭典에서 演繹의 방법론에 의해 만들어 낸 慣用音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4) 「淸濁의 혼동」이라는 해석에서 「혼동」의 의미에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혼동」의 의미에는 「모른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 그러나 注釋書 및 諸 音義의 검토에 의하면 心空・快倫 등과 같은 승려들은 깊은 音韻學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中古音과 맞지 않는 字音의 淸濁에 대해 일괄적으로 「淸濁의 혼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濁)淸, 淸)濁과 같이 中古音과 맞지 않는 字音を 모두 「혼동」이라는 카테고리로서 묶는 것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書 3種의 揭出字(중복 글자 제외) 전체를 비교할 수 있도록 分韻表로 정리하였고, 小倉肇의 字音点分韻表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술한 唇音字를 포함하여 다른 聲母에서도 中古音과 淸濁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에 淸濁의 혼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며, 이들에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 ① 諧聲符 자체가 濁音이며,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단순 類推)
- ② 같은 諧聲符를 갖는 글자가 淸音과 濁音을 갖으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
- ③ 異體字가 濁音을 갖으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
- ④ 品詞 혹은 漢語의 語彙에 따라 淸濁이 나뉘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
- ⑤ 新濁에 의한 濁音이 고착화 한 것으로 보이는 것
- ⑥ 聲點의 誤記

## 참고문헌

- 島田友啓, 『法華經單字漢字索引』, 孔版社, 1964
- 『妙法蓮華經釋文』, 古辭書音義集成 4, 汲古書院, 1979
- 毛晃, 『增修互註禮部韻略』, 天理圖書館善本叢書漢籍之部編集委員會編, 天理大學出版部, 1982
- 『法華經』字音点 및 音義 諸本-上述
- 徐時儀 校注, 『一切經音義三種校本合刊』, 上海古籍出版社, 2008
- 熊忠, 『古今韻會舉要』 影印本, 大化書局, 1979
-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古籍出版社, 2008
- 宗淵, 『法華經考異』, 大阪大學圖書館藏本, 1840
- 佐藤進・濱口富士雄 編, 『漢辭海』, 第四版, 三省堂, 2019
- 陳彭年 等 編, 『宋本廣韻』, 江蘇教育出版社, 2008
- 鳩野惠介, 『日本漢字音における例外的字音の処理の問題』, 大阪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 島田友啓, 『法華經單字漢字索引』, 古字書索引叢刊, 1964
- 肥爪周二, 「日本漢字音史から見た法華經」, 『日本化する法華經』, 勉誠出版, 2016
- 色井秀讓, 『眞阿宗淵上人と山家本法華經-西來寺よみの手引』, 西來寺刊, 1980
- 沼本克明, 『日本漢字音の歴史』, 東京堂出版, 1986
- 小倉肇, 「研究篇」, 『日本吳音の研究』, 新典社, 1995
- \_\_\_\_\_, 「資料篇」, 『日本吳音の研究』, 新典社, 1995
- \_\_\_\_\_, 「資料篇一(上)」, 『續・日本吳音の研究』, 和泉書院, 2014
- \_\_\_\_\_, 「資料篇一(下)」, 『續・日本吳音の研究』, 和泉書院, 2014
- \_\_\_\_\_, 「資料篇二」, 『續・日本吳音の研究』, 和泉書院, 2014
- 中澤信幸, 『中世日本における韻書受容の研究』, おうふう, 2013
- 湯沢質幸, 『唐音の研究』, 勉誠社, 1987
- 兜木正亨, 「妙法華經文字考」, 『印度學仏教學研究』 4, 日本印度學仏教學會, 1954
- 柏谷嘉弘, 「山家本法華經の連濁」, 『訓点語と訓点資料』 64, 訓点語學會, 1980
- 小川栄一, 「『法華經隨音句』の字音」, 『訓点語と訓点資料』 64, 訓点語學會, 1980
- 小林芳規, 「院政・鎌倉時代における字音の連濁について」, 『広島大學文學部紀要』 29, 広島大學文學部, 1970
- 宋在漢, 「西來寺藏 『法華經安樂行品吳漢兩音』字音点分韻表(二)」, 『日本學研究』 5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 \_\_\_\_\_, 「西來寺藏 『法華經安樂行品吳漢兩音』字音点分韻表(一)」, 『日本學研究』 59, 단국대학교

日本 近世 시기 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의 韻書 인용과 清濁 變容의 문제

교 일본연구소, 2019

\_\_\_\_\_, 「日本 近世시기 吳音의 字音 變容에 대한 高査-舌音系 全濁字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8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0

東國大學校 東國譯經院 佛教辭典(<http://abc.dongguk.edu/ebti/c3/sub1.jsp>)

## A Problem of quote of Rhyme Book and transformation of Sei-Daku in the field of Hokkekyo-Jiongaku in Middle Japanese

Song, Jae-han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 of settlement process in Sino-Japanese Go'on is a review of the changes of Sei-Daku(清濁) in Hokkekyo-ziongaku(法華經字音學) of modern Japanese. There are many things that do not match in Hokkekyo-Dokujyuon(法華經讀誦音) and it is also confirmed through interpretation of Sangebon, Nissobon and a book of annotation. Because such knowledge can also be seen in Kuzogebon(『九條家本』) or Hokkekyotanzi(『法華經單字』), it can be said to go up to the end of Heian(平安), at least in time. It is possible that the reason for this discrepancy is analogy and misspelling. Thi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whole of the other Seibo(聲母) is not covered in the data, Sei-on(清音) of Zen-daku(全濁) is more than Daku-on(濁音) of Zen-sei(全清) and Zi-sei(次清). However, it needs to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letter since it can be found that Sei-daku(清濁) uses different types of Itaizi(異體字, a different character of shape) or Seibo(聲母) is used by different types of Seibo(聲母). As a result, the source of the Sei-daku, which does not coincide with the Middle Cinese, was subdivided as follows.

- ① Xiesheng series itself is Daku'on, and it is used as it is.
- ② Letters with the same Xiesheng series have Sei'on and Daku'on, used without distinguishing it.
- ③ Variant Chinese characters have Daku'on, used without distinguishing it
- ④ Sei-Daku is divided according to word class or Vocabulary of Chinese and used without distinguishing it
- ⑤ Daku'on by a Sin'daku seems to be fixed
- ⑥ Sei'ten(marks for the "Four Tones" of classical Chinese) of error

日本 近世 시기 法華經字音學에 있어서의 韻書 인용과 清濁 變容의 문제

**Key Words :** sei-daku(清濁), Hokekyo-jiongaku(法華經字音學), Sangebon(山家本), Nissobon  
(日相本), Transfomation(變容), Xiesheng series(諧聲符)

